

보도자료

보도일시

[지면보도] 2024년 5월 1일(수) 조간
[인터넷 기사] 2024년 4월 30일(화) 15:00 이후

담당자

노세리 한국노동연구원 기획조정실장
(044-287-, @kli.re.kr)
박노준 한국노동연구원 기획조정팀
(044-287-6034, parknojun@kli.re.kr)

배포일시

2024년 4월 30일(화) 14:30

한국노동연구원 주관 정책 세미나 개최
“저출산·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안 모색”

- 한국노동연구원은 한국국제경제학회, 한국인구학회와 함께 2024년 4월 30일(화)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저출산·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이번 정책 세미나는 전문가들의 발표와 종합토론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다.
- 원용걸 한국국제경제학회장의 개회사와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중백 한국인구학회 부회장,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 1부 발표 세션에서는 △ 60세 전후 고령자의 노동시장 이행과 빈곤 변화, △ 장년의 국민연금 수급 공백기를 활용한 출산지원정책 방안 모색, △ 저출산 정책의 거버넌스 한계 등을 주제로 3개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
- 첫 번째 발표를 진행한 한국노동연구원 이승호 연구위원은 60세 전후

고령자의 노동시장 지위 변화를 유형화하여 보여주며 고령자 고용이 활성화될 필요성과 이를 위한 정책 제언

- 이승호 연구위원은 고령자 고용이 활성화하여 개인 삶의 질 증진, 노인 빈곤을 하락, 생산연령인구 감소 완화를 도모하기 위해 특히 주된 일자리 고용 연장 필요성을 강조
- 그 방안으로 지속가능한 근로조건과 함께 하는 고용기간 연장을 노사의 협력, 기존재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 확대, 고령화에 맞춘 서비스의 실효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
- 두 번째 발표에서 서울시립대학교 송헌재 교수는 지속적인 출산을 하락의 원인으로 높은 자녀 양육 비용과 자녀 양육에 대한 여성의 기회 비용 증가를 꼽으며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
- 송헌재 교수는 장년층을 고용하여 자녀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을 설립하여 연금수급개시연령 이전 소득단절시기의 소득원을 제공하고 청년세대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청년 세대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출산 지원 정책의 효과를 높이자고 강조
-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이상림 책임연구원은 구조적 접근 없이 지원 위주의 단위 사업이 나열된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한계를 언급하며 새로운 인구전략 거버넌스의 방향을 제시.
- 이상림 책임연구원은 단위 사업에서 종합적 사회정책으로의 정책 프레임 전환, 정부 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관리체계 마련, 민간 참여 촉진을 통한 사회적 담론 형성이 중요하다고 밝힘

- 이어서 2부 세션에서는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의 사회로 이윤수 서강대 교수, 김근태 고려대 교수, 기재부 정일 인구정책과장, 보건복지부 이윤신 인구정책총괄과장, 최세림 KLI연구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짐
- 기재부 정일과장은 향후의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은 **출산율 제고**에서 **출산율·경활인구·생산성 동시제고**로, **재정·세제 지원**에서 **노동·교육·지역 구조개혁 병행**, **백화점식 대책**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정책 추진방식을 이동할 필요성을 강조
 - 복지부 이윤신과장은 지금부터 향후 6-7년을 인구정책의 마지막 골든 타임으로 보고 결혼·출산·양육이 행복을 위한 선택의 일부가 되도록 영아부터 초등까지 **최고수준의 돌봄·교육 제공**,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 보장**, **가족친화적 주거지원** 등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음을 밝힘
 - 이윤수, 최세림, 김근태 교수 등의 토론자들은 또한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는 규범과 관행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본에서처럼 **고연령 인력의 경쟁력에 착안하여 인력을 운용하며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 적절한 근로조건과 보상체제로 새로운 계약을 하며 기존 직장이나 협력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노사의 적극적 노력**과 함께 **정부의 지원**이 적절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
 - * 우리나라 노동시장 참여자는 평균적으로 49.4세에 주된 일자리에서 나와 직전의 63% 수준의 급여를 받고, 다시 2차로 옮겨간 일자리에서는 53%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일하다가 은퇴
 - * 동경에 있는 요코비키 라는 기업은 경험 있는 고연령자들을 채용하여 비즈니스를 영위하면서 높은 생산성을 유지
 - 한국노동연구원의 최세림연구위원은 그간의 계속고용 노력이 경력단절 없는 여성과 남성 근로자 위주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육아를 위해 경

력이 단절되었던 여성이 빨리 주된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폴리텍 등에 취미나 자기개발성 아닌 노동수요에 맞춘 과정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

- 토론자들은 돌봄을 전담하는 공기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동돌봄을 공동으로 하는 사업을 주관할 기관(예컨대 책임을 갖고 늘봄학교의 교육부-복지부간, 중앙정부-지자체 간 책임소재를 조율하는 운영주체)이 영유아 돌봄의 부처별 단절 내지 사각지대 보완하고 연계하는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
 - 또한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부모를 돌보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처럼 다자녀 가구부터 조부모의 손주 돌봄 인정제도를 시험해 볼 필요성 제시